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최근 연구동향*

김예린** · 유순화*** · 안진영****

초 록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표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관련 최근 연구 논문을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집단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7년 사이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련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국회도서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주제로 수집하여, 총 62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문헌적 특징은 2002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론적 근거는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이 5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주제로는 정서 관련 주제가 37%로 가장 많았다. 연구방법으로는 1편의 질적연구를 제외한 61편의 연구가 실험 설계 방법을 실시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포함한 실험연구가 총 24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에서는 정서관련 척도가 38.7%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구조적요인에서 연구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다양했으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4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은 집단 구성원 수 6명~10명, 집단회기 9~12회기, 회기당 운영시간 60~90분으로 진행된 방식이 많았다. 효과성은 54편의 논문이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가장 많이 제시된 제언으로는 프로그램 적용의 다양화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그램 제공의 필요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한계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연구동향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BK21플러스 미래지향적 교육디자이너 양성 사업단 참여연구원, 제1저자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교신저자, shyoo@pusan.ac.kr.

**** 부산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I. 서론

가정은 개인이 성장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집단으로 아동·청소년의 성격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아동은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자라며, 이렇게 형성된 부모와의 애착관계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와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미혼모, 가정의 빈곤 및 학대,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면서 보호대상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2017)에 따르면 현재 전국 243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으며, 25,344명의 아동들이 보육시설 및 위탁 가정 형태로 국가의 보호를 받고 있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란 만 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가 부재하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의 학대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어 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을 의미한다(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14). 이들은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가정 위탁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일정한 연령이나 조건이 되면 보호가 종료되어 자립을 하게 된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시설 입소 전에는 원가족으로부터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성장하고, 시설에 들어와서는 통제되고 획일화된 규칙 환경 속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된다(신혜숙, 201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고한 연구가 소수 있지만, 많은 연구들은 이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정서적 결핍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한다(김혜숙, 1996; 정원철, 이화명, 2014). 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은 유기 불안, 애정결핍, 낮은 자존감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며, 인지와 행동 면에서의 결핍이 있고, 집중력 및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있다(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2006; 표갑수, 2000; Racusin, Maerlander, Sengupta, Straus & Isquith, 2003).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위축되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한다(권세은, 이순형, 2002; 성은희, 안혜원, 윤명희, 2015).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결핍되었던 심리적 지지, 안정감, 긍정적 의사소통 및 안전한 대인관계 경험을 하도록 돕고, 이들에게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정

세진, 2017). 이러한 필요에 따라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관련 집단 프로그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들은 주로 그들의 우울, 불안, 위축 등의 정서적 문제 감소와 자아존중감, 사회적 기술, 적응력 등의 향상을 주제로 진행되었고, 그 효과성도 검증되었다(김춘경, 김기영, 2004; 김현우, 2010; 서지혜, 2006; 송경환, 김정필, 2012; 이영옥, 2006; 조영미, 이동영, 2014).

이처럼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시 말해, 프로그램이 어떤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별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연구들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하여, 추후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면서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002년~2017년 사이에 이루어진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문헌적 특징(발표년도, 학술지 유형, 학문범주 등)은 무엇인가? 둘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론적 근거 및 프로그램 주제는 무엇인가? 셋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연구 방법과 측정도구는 무엇인가? 넷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주로 이루어진 구조적 요인(집단 구성원 수, 집단회기, 회기당 운영시간)은 무엇인가? 다섯째, 시설보호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후속 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특성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란 만18세 미만의 자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인해 원가정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아동복지 시설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아동을 의미한다(도미향 외, 2014; 아동복지법, 2017. 9. 19. 법률 제 14887호).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 내용 현황에 따르면, 2016년도 요보호아동 발생인원 4,592명 중 유기 264명, 미혼모 856명, 미아 10명, 비행기출부랑아 314명, 빈곤·실직·학대 등이 3,148명이었다(보건복지부, 2017). 이들은 주로 부모 질병이나 가족해체 등의 문제나 이혼, 장애, 비행 등 아동 자신의 문제로 인해 가족에서 이탈되어 시설에서 보호받게 된다(도미향 외, 2014).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은 시설입소 전에 가족 내에서 부모의 학대 및 유기 등으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거부당하고 좌절감을 경험하며, 심리적·정서적 상처를 받게 된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박탈감과 위축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문진명, 2000). 또한 이들은 시설이라는 환경 속에서 다수의 아동·청소년들과 집단으로 보호받으므로, 통제된 환경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낮은 수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정인협, 오정수, 1994).

시설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일반 아동에 비해 기쁨과 같은 긍정적 정서성 수준은 낮게 나타났으며, 슬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성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미영, 2006). 시설보호 아동의 사회적 기술과 정서조망 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시설보호 아동은 다른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으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에서 오래 생활한 아동은 이기심, 반발심, 열등감, 타인에 대한 불신감을 지니게 되고,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권세은, 이순형, 2002;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들이 타인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쉽지 않으며, 일반아동에 비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나 외부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거나, 폭행, 반항, 물건 던지기, 타인 비난, 상스러운 언어 사용 등의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성은희 외, 2015). 또한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과잉행동과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며, 관계에서 수동적이거나 다른 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작은 편이었다(Roy, Rutter & Pickles, 2000; Vorria, Rutter, Pickles, Wolkind & Hobsbaum, 1998).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일반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발달과정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시설보호 초등학생의 경우 대부분의 아동들이 신장과 체중이 한국소아의 발육표준치에서 뒤떨어지고, 영양소 섭취량도 권장량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미향 외, 2014). 또한 시설보호 아동들이 일반 가정 아동들보다 인지 및 사회적 발달이 지연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으며(Kaler & Freeman, 1994; Vorria, Papaligoura & Sarafidou, 2006), 인지능력과 행동문제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아동의 언어적 이해수준이 표준 점수에 비해 낮았으며, 낮은 언어적 이해능력을 보이는 아동들이 불안과 위축 등의 내면적인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심리·정서적인 문제 및 발달상의 취약성 문제와 더불어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19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게 되어 독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신희령, 김성경과 안혜영(2003)의 연구에 의하면 퇴소아동의 자립생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소아동은 주택문제, 심리적 불안감, 취업기술의 부족, 자립지원금 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시설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보고한 연구들도 있다. 이들은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의식이 발달하게 되며, 시설 내 다른 아동들과의 상호작용이나 교육을 통해 양육자로부터의 심리·정서적 결핍을 보완하기도 한다(김혜숙, 1996). 보호시설에서의 공동생활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이 타인의 권리나 능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고, 동료 청소년 간의 건전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자기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서로 돕기도 한다(신은주, 1995). 또한, 활동성도 시설아동이 일반가정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최일경, 199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설에서 성장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보고 한 연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일반 아동에 비해 부정적인 측면이 많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이들의 부정적 부분을 수정하고 긍정적 측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 연구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대상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들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성장, 둘째 정서(분노, 우울, 공격성, 정서 지능 등), 셋째 대인관계 관련 능력 및 학교적응이 있다. 그 외에 자립 등의 다양한 주제들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었으며, 프로그램의 결과는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자아성장을 위한 프로그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설보호 아동에게 사회적 기술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결과가 있었다(김기영, 김춘경, 2003). 무용프로그램이나 음악과 미술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과 같이 집단예술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 형성을 돕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었다(서지혜, 2006; 허혜리, 이윤연, 김지은, 2016). 또한 통합적 미술치료 프로그램이나 집단심상치료 프로그램을 시설보호 아동에게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증진에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었다(이시종, 2010; 이희자, 정지숙, 2003).

다음으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정서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들도 다수 있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미술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아동의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강병재, 손남숙, 2005; 서정훈, 고영란, 양정미, 2012; 송경환, 김정필, 2012; 이영옥, 2006). 미술치료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지능이 향상되어 감정을 이입하고 촉진시키는 정서 조절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었다(양은주, 최연실, 2006; 임성희, 이명우, 2013). 또한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하여 아동중심 놀이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의 내재된 우울과 공격성이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양숙미, 임원신, 최미옥, 2005).

마지막으로 집단 프로그램이 시설보호 아동의 대인관계 능력 및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시설보호 아동의 또래관계와 학교 적응의 모든 영역의 점수가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더 높아졌다(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10). 공감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시설 아동·청소년의 또래관계가 향상되고(성은희 외, 2015),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다(박범진, 이숙민, 2016). 김인과 신성숙(2012)은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한 연구에서 실험집단 아동들이 통제집단에 비해 위축, 과잉 통제된 행동 등의 내재화 문제뿐만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의 외현화 문제 모두에서 현저하게 문제행동이 감소하였으며, 학교생활적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위와 같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행동문제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 외에 이들이 향후 처하게 될 독립과 미래의 가족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연구들도 있었다.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설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가 있었으며(배은숙, 강기정, 2008), 시설에서 생활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및 건강가정형성교육 중심의 한 자립준비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이후 대상 고등학생들이 퇴소 후의 생활과 사회적응에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여 그 효과를 입증하였다(강복정, 이정덕, 2000).

이상으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프로그램 연구들은 이들이 다양한 심리·정서적, 현실적 문제를 다루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주제나 이론적 배경이 다르고, 연구대상의 연령, 집단설계, 연구방법도 다양하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한 연구는 진행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을 고찰하는 연구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국내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집단 프로그램 연구의 고찰을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와 국회도서관 논문 데이터 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주제로 수집한 결과, 검색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205편이었다. 이 중에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 아닌 다문화 청소년,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술지 논문과, 동일한 주제 논문, 집단 프로그램 이외의 학술지 논문 143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총 62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 논문으로 선정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분석내용

연구물 분석을 위하여 상담전공 교수 1명, 상담전공 박사수료 1명, 상담전공 박사과정 1명이 평정자로 참여하였으며, 평정 절차는 4단계로 이루어졌다. 1단계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 논문의 초록을 검토하여 분석 대상 62편을 선정하였다. 2단계 평정자들은 김남연과 양난미(2012)의 ‘논문요약 및 평정 지침서’를 참고하여 논문의 문헌 특성 요약, 이론적 근거, 주제, 평가(연구방법, 측정도구), 구조적 요인(집단 구성원 수, 집단회기, 회기당 운영시간), 효과성 및 제언 등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였다. ‘논문요약 및 평정 지침서’는 김수정(2008)이 제시한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분석틀과 논문의 문헌 특성, 측정 도구, 통계분석 방법 등을 제시한 조성호(2003)의 평정 지침서와 프로그램 대상, 목적, 연구 주제 등의 영역을 제시한 권영배와 이종연(2010)의 분석틀을 기본으로 김남연과 양난미(2012)가 제작한 것이다. 이 분석틀은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및 연구동향과 같은 기초 리뷰연구에서 사용되고 있다(김희은, 이미현, 김인규, 2014). 3단계는 평정자들이 분석 틀을 바탕으로 논문을 1차 분석한 후 1차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분화된 분석 기준을 마련

하여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분화된 분석 기준으로 ‘학문범주, 실험설계 방법’이 추가되었다. 분석과정에서 평정자들이 논문 62편을 개별 분석한 후, 서로 결과를 비교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았다. 4단계는 분석한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평정자들이 분석한 내용을 여러 번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의 논문 분석 틀은 표 1과 같다. 논문의 문헌 특성은 발표년도, 게재학술지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기록하였다. 이론적 근거는 프로그램의 이론적 배경, 주제는 프로그램의 종속변인, 평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과 측정 도구, 구조적 요인은 프로그램 참여인원의 크기와 프로그램의 회기 및 소요 시간, 효과성 및 제언은 프로그램 실시 결과 나타난 효과성과 연구자들이 밝힌 논의를 분석하였다.

표 1
논문의 분석 틀

변수		내용
문헌 특성	발표년도	2002~2017(16년간)
	학술지 유형	등재지, 등재 후보지, 그 외 학술저널
	학문범주	
이론적 근거		문화예술, 교류분석, 분석심리학, 사회적 역량, 심상치료, 인간중심, 인지주의, 행동주의, 정신분석, 사회학습이론, 집단미술치료, 현실요법, 사회성기술
프로그램 주제		정서, 자아성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가족관계, 진로
평가	연구방법	양적, 질적, 혼합
	측정도구	투사검사, 정서, 자아성장,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가족관계, 진로 및 자립관련 척도
구조적 요인	연구 대상자	초등, 중등, 고등학생
	표본 크기	1명 ~ 150명
	프로그램 구성	회기 수 : 4회기 ~ 33회기 주기 : 주 1~3회 시간 : 50분~160분
효과성 및 제언		

IV. 연구결과

제시된 분석 틀을 기준으로 국내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학술지논문 총 62편을 고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 대상의 문헌 특성

연구 대상의 문헌 특성으로는 발표년도, 학술지 유형, 학문 범주가 포함된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2000년, 2001년도에 이루어진 집단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2002년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2년~2005년까지 실시된 연구는 총 6편으로 많지 않았으며, 6편의 연구가 이루어진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2017년까지 이루어진 총 논문의 수는 62편으로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로 발표된 학술지 논문의 숫자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5년 단위의 연구 수를 비교해보면 초기에 비해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오히려 연구 수가 3편정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학술지에 따른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62.9%로 등재지에 연구가 많이 출판되었다. 그 외 학술지에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 수는 초기 3편에서 최근에는 9편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표 2

논문의 연도별 추이

구분	2002~2007	2008~2012	2013~2017	소계	비율(%)
등재지	9	18	12	39	62.9
등재후보지	3	1	1	5	8.1
그 외 학술지	3	6	9	18	29.0
합계	15	25	22	62	100

연도에 따른 연구 주제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적응 및 사회성 연구는 200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자아 존중감, 자아

개념, 정서, 분노, 우울 등의 주제가 계속적으로 다뤄졌다. 사회적 기술이나 정서관련 변인은 일반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해당하는 주제이며,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도 이러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학술지 게재 논문을 학문범주 및 학술지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35.5%로 가장 많았으며, 예술체육 분야에서 27.4%, 교육 분야에서 16.1%, 그 외에 의학, 공학 분야에서 출판되었다.

표 3

학문 범주 및 학술지

	카테고리	학술지	소 계	비율(%)
공 학	환경공학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4)	4	6.5
	교육학	교육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2)		
교 육	유아교육	아동미술, 아동교육, 아동미술교육, 보육복지연구, 아동학회지(2)	10	16.1
	학생지도	생활지도연구		
농수해양	입학	화훼연구	1	1.6
	가정학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족관계학회지		
	경영학	벤처창업연구, 산업진흥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사회과학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임상사회사업연구, 한국아동복지학(2), 아동가족치료연구(3), 학교사회복지	22	35.5
	심리학	가족과 상담, 명상심리상담, 상담학연구, 통합심신치유연구(2), 인간발달연구(2)		
	정책학	디지털융복합연구		
	행정학	한국자치행정학보		
	무용	한국무용교육학회		
예술체육	미술	미술치료연구(11), 조형디자인연구	17	27.4
	예술일반	예술심리치료연구(2), 한국예술연구		
	음악	음악교육공학		
의 학	정신건강의학	놀이치료연구, 정신보건과사회사업, 현실치료연구, 한국예술치료학회지, 한국동서정신과학학회지	6	9.7
	재활의학	재활과학연구		
자연과학	자연과학일반	자연과학연구논문집	1	1.6
기 타		임상예술치료연구	1	1.6
합 계			62	100

2. 이론적 근거 및 프로그램 주제

연구대상 논문들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대상 논문 전체 62편 중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은 51.6%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프로그램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활동적인 미술이나 음악, 무용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따라 효과를 보이는 변인이 각각 달랐다. 예를 들면, 연극보다는 무용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우울을 낮추는데 효과적이었으며, 미술치료로만 진행한 것보다 놀이치료와 미술치료를 병행한 프로그램이 자기조절력, 또래관계, 학교적응의 변인에 더 효과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4

이론적 근거

이론적 근거	소계	비율(%)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32	51.6
원에 치료 기반	5	8.1
사회성 기술 및 사회적 역량, 사회학습	3	4.8
현실요법	2	3.2
교류분석, 분석심리학적 관점, 인간중심적 관점, 인지·행동주의적 관점, 통합적 접근(체계론적 접근 + 사회기술훈련 / 정신분석적 관점 + 사회학습이론)	6(각 1)	9.7
따로 제시하지 않음	14	22.6
합계	62	100

일반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주제는 자아성장,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진로, 정서 표현 등으로 구분한다(김희은 외, 2014). 연구대상 논문들을 주제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정서와 관련된 주제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반면에 가족관계 및 진로와 관련된 주제는 매우 적었다.

표 5

프로그램 주제 분류

프로그램 주제	소계	비율(%)
정서(분노, 우울, 공격성, 감사성향, 공감능력, 정서개념이나 정서지능)	23	37.1
자아성장(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개념, 자기조절, 자기표현)	19	30.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적응행동,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문제행동)	16	25.8
가족관계(가족 개념이나 원가족과 의사소통, 예비부모교육)	3	4.8
진로(자립준비)	1	1.6
합계	62	100

3. 평가(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분석대상 논문의 연구 설계는 표 6과 같다. 1편의 질적 연구를 제외한 61편의 연구가 실험 설계 방법을 실시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포함한 실험연구는 총 24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혼합연구는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것으로 단일한 연구방법에서 오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혼합 연구를 분석한 결과, 사전·사후 검사와 함께 행동 관찰을 한 연구가 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프로그램 회기 분석 자료를 제시한 연구는 4편, 심층인터뷰는 2편, 만족도 분석이나 소감문은 각 1편, 그 외에 작품관찰·행동관찰/ 회기분석·행동관찰/ 소감문·회기분석/ 만족도·회기 분석·자기 평가를 동시에 제시한 것도 각각 1편이었다. 세 번째로 사용된 연구 방법은 단일집단실험설계 방법으로 그 수가 14편이었다. 그 외에도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을 사용한 질적연구가 1편이었다. 다른 연구들과 달리 1편의 연구에서는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프로그램 개입을 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관심집단을 추가하여 세 집단 간의 효과크기를 비교하였다. 효과크기를 살펴보면, 실험집단 > 관심집단 > 통제집단의 순서였다. 검사실시방법을 살펴보면, 추후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61편의 실험 논문 중 8편에 불과했다.

분석한 논문의 연구대상 표집 및 배정을 살펴보면, 1편(5개 지역에서 연구 대상을 표집)의 연구를 제외한 대부분은 연구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무선 표집 방법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언급한 연구는 1편에 불과 했다. 이는 대체적으로 무선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대상 배정 역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배정한 방법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는 연구가 28편이나 되었으며, 무선 배정 11편, 심리검사 결과로 표집한 후 연구자가 임의로 배정한 것 7편, 연구자 임의로 집단을 구성한 것 2편, 참여의사 여부에 따라 집단 구성원을 배정한 연구는 1편이었다.

표 6
연구방법

실험설계방법	검사 실시방법	소계	비율(%)
단일실험설계	사전, 사후검사	11	17.7
	사전, 중간, 사후검사	1	1.6
	사전, 중간, 사후, 추후검사	1	1.6
	사전, 중간(4번), 사후검사	1	1.6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19	30.7
	사전, 사후, 추후검사	5	8.1
2개의 실험집단·통제집단	사전, 사후검사	2	3.2
실험집단·통제집단·관심집단	사전, 사후, 추후검사	1	1.6
혼합연구(양적+질적)	사전, 사후검사	19	30.7
	사전, 사후, 추후검사	1	1.6
질적연구		1	1.6
합계		62	100

시설아동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62편의 논문에서 약 40개이며, 사용된 척도를 주제별로 범주화 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구마다 여러 개의 척도를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가장 많이 사용된 척도는 정서관련 척도였다. 이는 프로그램에서 정서관련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표 7
측정도구

측정도구	사용빈도	비율(%)
정서관련 척도(우울, 공격성, 정서지능, 불안, 감사성향 등)	43	38.7
자아성장 관련 척도(자아탄력성, 자기개념, 자아존중감, 자기 통제, 자기표현,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 등)	25	22.5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관련 척도(사회기술, 또래관계, 사회성 증진 등)	21	18.9
투사검사 관련 척도(HTP, KHTP, KFD, SCT, 인물화, PIRT 등)	16	14.4
가족 관계 관련 척도(가족개념, 가족이미지, 원가족관계경험 등)	6	5.5
합계	111	100

4. 구조적 요인(집단 구성원 수, 집단회기, 회기당 운영시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의 구조적 요인은 표 8과 같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으로는 미취학 아동 2편, 초등학생 49편, 고등학생 3편, 초·중등 혼합 4편, 중·고등 혼합 2편, 초·중·고등 혼합 2편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다.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중 초등학생이 전체인원의 49.7%로 인원수가 가장 많으므로(박금식, 2017), 이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참여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 및 가족관계 등을 상세하게 설명한 논문은 21편, 성별, 입소 사유, 가족관계 등 간략한 정보를 제시한 논문은 6편이었으며, 설명을 하지 않은 논문이 35편으로 가장 많았다.

집단 운영 방식을 살펴보면, 집단 구성원의 수는 1명에서부터 30명, 프로그램 총 회기는 주1~3회, 총 4회기에서 33회기, 회기당 운영 시간은 40분~160분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진행은 집단참여 인원이 6명~10명, 집단회기는 9~12회기, 집단 시간은 60~90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8
구조적 요인

분류	범주	소계	비율(%)
집단 구성원 수	1명	4	6.5
	2명 ~ 5명	10	16.1
	6명 ~ 10명	28	45.2
	11명 ~ 20명	14	22.6
	21명 ~ 30명	3	4.8
	미제시	3	4.8
	소 계	62	100
집단회기	4회기 미만	1	1.6
	5회기 ~ 8회기	5	8.1
	9회기 ~ 12회기	25	40.3
	13회기 ~ 16회기	14	22.6
	17회기 ~ 20회기	7	11.3
	21회기 이상	9	14.5
	미제시	1	1.6
소 계	62	100	
회기당 운영시간	~ 60분 미만	7	11.3
	60분 ~ 90분 미만	18	29.0
	90분 ~ 120분 미만	13	21.0
	120분 이상	8	12.9
	미제시	16	25.8
소 계	62	100	

5. 효과성 및 제언

전체 62편의 분석논문 중 측정된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한 것은 54편이며, 일부 변인에서만 유의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고한 논문은 8편이었다. 유의한 긍정적 결과를 나타낸 주제는 표 9와 같다. 공감능력, 공격성, 대인관계, 우울 등과 같이 정서적 측면에 해당하는 변인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 중에서 사전·사후점수 차이가 가장 큰 변인은 우울과 공격성, 공감능력, 또래관계였다. 반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변인에는 감사 대상에 대한 인식 및 인

정, 모 이미지, 가족 역할, 사회성 척도의 하위척도인 책임성, 준법성, 생활스트레스, 과제난이도 선호 등이 있다. 이러한 변인은 정서적 영역보다는 인지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 또한, 같은 변인이라도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우울이나 정서지능, 자기조절, 자기효능감, 자기존중감 등의 변인은 결과가 유의미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연구대상이나 실험설계 방법 및 프로그램 실시 방법과 장소, 시간, 프로그램 진행자의 전문성 등의 차이가 프로그램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 9
프로그램 실시 후 나타난 효과성

	프로그램 주제	소계	비율(%)
전체변인 유의한 결과	정서(분노, 우울, 공격성, 공감능력, 정서개념이나 정서지능)	18	29.0
	자아성장(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자기개념, 자기조절, 자기표현)	19	30.7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적응행동, 학교생활적응, 사회적 기술, 대인관계 및 또래관계, 문제행동)	14	22.6
	가족관계(원가족과 의사소통, 예비부모교육)	2	3.2
	진로(자립준비)	1	1.6
일부변인 유의한 결과	정서(감사정서 체험 및 반응경향성, 우울, 자아상, 정서조절, 정서인식)	4	6.5
	자아성장(자기효능감)	1	1.6
	가족관계(가족이미지, 가족개념, 미래가족가치관)	1	1.6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근면성, 협동성, 자주성, 사회성, 대인관계)	2	3.2
합계		62	100

후속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의 제언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또 다른 제언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참여대상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 설계의 필요성과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확인하고, 질적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표 10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내용	횟수	비율(%)
프로그램 적용의 다양화(대상 및 지역의 일반화)	14	22.6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	12	19.4
선행연구를 토대로 이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	9	14.5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연구 설계가 필요	8	12.9
추후검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 및 변화 유무 확인	8	12.9
질적 연구 필요	5	8.1
신뢰도 있는 검사 척도지와 평가지 개발	2	3.2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추후 다양한 연구가 필요	2	3.2
비자발적 학생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흥미 유발 전략이 필요	1	1.6
프로그램 중간에 집단 간 비교 필요	1	1.6
합계	62	100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발전적 연구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2년에서 2017년까지 학술지 게재 논문 중 ‘시설보호아동·청소년’, ‘집단’, ‘프로그램’을 주제어 및 제목으로 하는 연구 62편의 논문의 문헌 특성(발표년도, 학술지 유형, 학문 범주), 이론적 근거, 주제, 평가(연구방법 및 측정도구), 구조적 요인(집단 구성원 수, 집단회기, 회기당 운영시간), 효과성 및 제언을 분석하였으며,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 프로그램의 문헌적 특징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며, 초기 5년 동안은 15편정도 연구가 이루어지다가 최근에는 연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라는 특정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연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이 잘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이면서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술지에 따른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등재지에 실린 연구가 가장 많았지만, 그 외의 학술지에서 게재되는 논문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문범주별로 살펴본 결과,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및 사회복지 영역이 속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이 실시되었으며, 그 밖에 예술체육, 교육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사회복지의 주요 대상이며,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술이나 음악 등의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교육 분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학적 측면에 미술 치료나 음악 치료와 같은 예술체육 분야를 방법론적으로 활용하면서 좋은 효과를 낳은 연구 결과도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학문 간의 경계를 넘어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주제는 연도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적응 및 사회성 연구는 2002년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기술,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정서, 분노 등 다양한 주제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이 불안, 낮은 자존감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된 경험을 보인다는 연구를 반영한다(권세은, 이순영, 2002; 표갑수, 2000). 따라서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받은 상처와 집단생활을 하면서 겪는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는 이들의 심리적 특성을 잘 고려하여, 가족치료나 스트레스 이론을 기반으로 설계된 집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집단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면, 51.6%가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이는 문화예술 분야는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통하는데 효과적이며, 특히 미술 영역은 다양한 매체로 자기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감정조절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여광응, 이점조, 이명화, 2006; 이영옥, 이정숙, 2011; 조정은, 2016). 또한, 우울 및 부정 정서는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줄어들었으며, 사회적 기술이나 공감능력은 미술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에서 향상되었다(김상백, 2009; 김종희, 2012; 서지혜, 2006).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변인에 따라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격적 특성을 잘 고려하고, 현재 겪는 심리적 어려움을 파악하여 필요한 문화예술 매체를 선정해야 하며, 다양한 이론적 근거를 통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설보호 아동·청소년 대상의 집단 프로그램의 주제로는 정서관련 주제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이 지닌 높은 공격성, 정서문제, 행동문제와 같은 당면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개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경연, 2002; 공경희, 2002; 권세은, 이순형, 2002; 김미애, 2002). 그러나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은 친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불안감과 상실감으로 인해 건강한 발달에 어려움을 겪으며(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19세가 되면 시설에서 퇴소하여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원가족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대상관계를 기반으로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나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및 선택 중심의 프로그램이 이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으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이루어진 실험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혼합 연구, 단일실험설계 등이 이루어졌다. 혼합연구는 사전·사후검사를 활용한 양적방법과 참여대상의 행동을 관찰한 질적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그램 전과 후에 집단 구성원의 심리정서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험 설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에 대한 무선표집이나 무선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표집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배정할 때 연구의 내·외적 타당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실시방법을 살펴보면, 51편의 연구에서 사전·사후 검사가 이루어졌으며, 추후검사가 이루어진 것은 8편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논문이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으로 추후 검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실시 후에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집단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프로그램 효과성과 지속성을 알 수 있는 추후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측정 도구로는 정서관련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으며, 그 외 자아성장 관련 척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관련 척도 등이 사용되었다. 이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와 집단 프로그램의 67%가 정서와 자아성장과 관련된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사용된 척도들이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들의 독특한 심리정서적 현상을 반영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대인관계나 정서를 측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서정훈 외(2012)는 일반적인 검사 척도를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척도 적용의 타당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집단을 비교할 수 있는 객관화되고 표준화된 지표인 동시에 단체 생활을 하는 등 특수한 환경에 놓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부분도 잘 반영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집단 프로그램의 구조적 요인(집단 구성원 수, 집단회기, 회기당 운영시간)을 살펴보면, 먼저 프로그램 참여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대상이 다양했다.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청소년 중,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므로(박금식, 2017) 이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이 비슷한 연령대도 있었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섞여 있는 집단도 있었다. 보호시설은 다양한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다. 그러나 집단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구성원이 비슷한 연령층일수록 집단의 응집력 및 개방적 참여도가 높아져서 프로그램 결과가 더 효과적인 경향이 있다(Corey, Corey & Corey, 2010, 2012). 따라서 프로그램 설계 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슷한 연령층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논문이 35편이었다. 그러나 참여자 특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는 경우, 후속 연구 설계에 구체적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연구를 실시할 때는 참여 대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진행된 프로그램 방식은 집단참여 인원 6명~10명, 집단회기 9~12회기, 집단 시간 60~90분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상담은 집단 구성원 수는 20명 이하, 진행횟수는 8회기 이상, 회기 당 진행시간은 60분 이상 90분미만의 구성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최신영, 안이환, 2013).

다섯째,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후속 프로그램 제언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울이나 공감능력, 공격성 등과 같은 정서적 측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에 가족역할, 감사 대상에 대한 인식 및 인정, 생활스트레스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은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우울이나 정서지능 등의 변인은 프로그램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의 문제, 다른 접근 방법의 필요, 프로그램 진행 환경의 적절성 등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가 제시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추후 연구에서는 사전·사후 점수 차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결과도 함께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프로그램의 적용이 다양해져야 하며, 지속적이고 장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프로그램 종료 후 추후검사 실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집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다양한 연구 방법과 신뢰도 있는 척도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추후에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러한 제언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첫째, 분석 대상의 범위를 학술지에 발표된 집단 프로그램 연구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학위논문 등까지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자료 처리 방법은 리뷰 연구로 프로그램 연구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각 연구들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차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메타 분석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메타분석을 실시하기에는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물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추후에 논문 수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독립된 연구 결과들의 종합된 결과를 일반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메타분석(김계현, 2007)을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시설보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보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를 마련하고, 앞으로 발전적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병재, 손남숙 (2005). 집단미술치료가 보육시설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아동사회학**, 26(2), 209-224.
- 강복정, 이정덕 (2000). 시설청소년을 위한 가족생활 교육의 필요성 연구: 건강가족적 관점. **한국가족관계학회**, 5(1), 153-182.
- 고경연 (2002). **아동복지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경희 (2002). **시설아동의 사회부적은 행동특성에 관한 비교연구-수도권 학교와 시설 청소년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권세은,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과 일반 아동의 사회적 기술, 정서조망 능력의 비교. **아동학회지**, 23(2), 107-120.
- 권영배, 이종연 (2010). **학업상담 프로그램 연구 동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0(1), 17-40.
- 김계현 (2007). **상담심리학연구: 주제론과 방법론**. 서울: 학지사.
- 김기영, 김춘경 (2003). 사회적 기술 증진 프로그램이 시설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아동복지학**, 16, 7-36.
- 김남연, 양난미 (2012). 국내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 2000년~2011년 발표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3(5), 2505-2522.
- 김미애 (2002). **양육시설 아동의 정서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상백 (2009). 동작명상치료 프로그램이 시설 청소년의 부적 정서에 미치는 효과: 원호 무애춤을 중심으로. **명상심리상담**, 3, 108-164.
- 김수정 (2008). 이혼과정에 있는 부부를 위한 미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한국의 이혼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함의. **신학과 목회**, 30, 327-355.
- 김인, 신성숙 (2012). 사회복지시설아동의 문제행동과 학교적응에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8(2), 47-70.
- 김종희 (2012). 시설아동의 공감능력 향상과 또래관계 개선을 위한 협동만다라의 효과. **아동미술교육**, 11, 19-42.

- 김춘경, 김기영 (2004). 시설아동의 사회적 기술 증진을 위한 집단놀이치료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놀이치료 연구**, 8(1), 19-35.
- 김현우 (2010). 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성향 감소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 5(1), 283-304.
- 김혜숙 (1996). **우리나라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희은, 이미현, 김인규 (2014). 국내 대학생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및 연구동향. **상담학연구**, 15(4), 1141-1456.
- 노현미, 최외선, 박인전 (2010). 치료놀이를 병행한 인간중심적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사회적 적응능력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7(4), 767-792.
- 도미향, 남연희, 이무영, 변미희 (2014). **아동복지론**. 서울: 공동체.
- 문진명 (2000).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또래피해지각에 따른 또래따돌림 귀인 및 소외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금식 (2017).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방안**(연구보고서 2017-04).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범진, 이숙민 (2016). 집단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분노 및 공감능력을 중심으로. **산업진흥연구**, 1(2), 71-78.
- 배은숙, 강기정 (2008). 시설청소년을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2), 173-190.
- 보건복지부 (2017). **2017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 서정훈, 고영란, 양정미 (2012).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미술치료연구** 19(2), 185-205.
- 서지혜 (2006). 무용프로그램이 복지시설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용교육학회**, 17(1), 121-132.
- 석주영, 안옥희, 박인전 (2006). 집단게임놀이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과 자아 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15(5), 703-718.
- 성미영 (2006). 시설보호 여부에 따른 아동의 정서성 발달과 내면화 및 외현화 행동 문제. **한국생활과학회지**, 15(1), 17-29.
- 성은희, 안혜원, 윤명희 (2015). 공감훈련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정서지능, 공격

- 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8(1), 101-119.
- 송경환, 김정필 (2012). 목재매체를 이용한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위축과 우울/불안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9(5), 1113-1131.
- 신은주 (1995). **시설아동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령, 김성경, 안혜영 (2003). 시설퇴소아동 자립생활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16, 167-193.
- 신혜숙 (2010). **시설아동의 공격성감소를 위한 시설양육자의 역할연구**. 호남신학대학교 기독교상담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양숙미, 임원신, 최미옥 (2005). 아동중심 놀이치료가 시설아동의 우울 및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아동복지연구**, 3(1), 35-47.
- 양은주, 최연실 (2006).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보육시설 아동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7(3), 775-787.
- 여광응, 이점조, 이명화 (2006). 자기표현 미술활동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ADHD) 아동의 주의산만, 공격성 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 7(1), 331-349.
- 유안진, 한유진, 최나야 (2002).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지각과 공격성 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3), 67-82.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시설보호 아동의 인지능력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 가정학회지**, 40(2), 57-66.
- 이순형, 이강이, 성미영 (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 학회지**, 39(4), 79-89.
- 이시중 (2010). 통합적 미술치료가 보육시설 아동의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예술치료학회지**, 1, 1-23.
- 이영옥 (2006). 시설아동의 위축 및 불안 감소를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13(2), 199-225.
- 이영옥, 이정숙 (2011). 미술치료가 시설보호아동의 외현화 문제와 사회적 유능성 및 일상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공학**, 29, 201-219.
- 이희자, 정지숙 (2003). 집단심상치료 program이 시설보호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

-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아동가족치료연구**, 2, 147-168.
- 임성희, 이명우 (2013). 집단미술치료가 시설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9(4), 331-347.
- 정세진 (2017). **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집단미술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사회적 기술과 정서지능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원철, 이화명 (2014).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시설 적응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1(3), 243-265.
- 정인협, 오정수 (1994).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 서울대 출판부.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 (1988~2003).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조영미, 이동영 (2014). 시설아동의 통합적 레크리에이션 승마 프로그램이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8(1), 6-29.
- 조정은 (2016).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설청소년의 자기표현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음악교육공학**, 29, 201-219.
- 최신영, 안이환 (2013).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 집단상담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초등상담연구**, 12(1), 13-32.
- 최일경 (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표갑수 (2000). **아동·청소년복지론**. 과주: 나남출판사.
- 허혜리, 이윤연, 김지은 (2016). 집단예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설보호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통합심신치유연구**, 3(2), 1-20.
- Kaler, S., & Freeman, B. J. (1994). Analysis of environmental deprivation: Cognitive and social development, in Romanian orphans.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4), 132-139.
- Corey, M. S., Corey, G., & Corey, C. (2012). **집단상담 과정과 실제**[*Groups: Process and Practice*]. (김진숙, 김창대, 박애신, 유동수, 전종국, 천성문 역.). 서울: 쉐케이지리닝코리아. (원저 2010 출판)
- Racusin, R., Maerlander, A., Sengupta, A., Straus, M., & Isquith, P. (2003). *Executive functions and post-traumatic symptoms in maltreated foster care*

- childre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Miami, FL.
- Roy, P., Rutter, M., & Pickles, A. (2000). Institutional care: Risk from family background or pattern of rearing?.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41(2), 139-49.
- Vorria, P., Papaligoura, Z., & Sarafidou, J. (2006). The development of adopted children after institutional care: A follow-up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7(12), 1246-1253.
- Vorria, P., Rutter, M., Pickles, A., Wolkind, S., & Hobsbaum, A. (1998). A comparative study of Greek children in long-term residential group care and in two-parent families: I. Social,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erences. *Journal of Child Psychol Psychiatry*, 39(2), 225-236.

ABSTRACT

Research trends in group programs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Kim, Yerin* · Yoo, Soonhwa* · An, Ji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search trends of group programs aimed 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in Korea. This paper also seeks to put forward for consideration basic materials aimed at better quality provision to group programs programs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62 articles on group programs for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from 2002 to 2017 with evaluation factors including the following; the theoretical background, topic, research method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research subjects, structural factors, the everyday practices of such programs and their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The most frequent theoretical background appearing in such papers was culture and art. The most frequent subject was the emotional subject. Quantitative research was used the most as a research methodology. In terms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s used, emotion related scales were the most common. In terms of structural factors, 9~12 sessions and 60~90 minutes per sitting was the most common. A total of 54 papers were reported to be effective, with the most frequent suggestions being the diversity of the program coverage in terms of both area and ag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gave rise to a number of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hich are also discussed.

Key Words: group program,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research trend

투고일: 2018. 3. 12, 심사일: 2018. 6. 11, 심사완료일: 2018. 6. 25

* The Department of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